
보물 지정 노서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의 연구

주 경 미*

목 차

- I. 머리말
 - II. 경주 출토 신라시대 금귀걸이의 발굴과 연구사
 - 1. 일제강점기
 - 2. 광복 이후~1990년대 초반
 - 3. 1990년대 중반 이후
 - III. 보물 제455호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 IV. 보물 제2001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 V. 맺음말
-

* 충남대학교 강사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2018년 보물 제455호로 재지정된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와 보물 제2001호로 새로 지정된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를 중심으로, 각 유물의 현황과 제작기법 및 양식적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이 두 쌍의 금귀걸이는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귀걸이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누금세공기법과 조형성을 보여주는 명품들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이 두 귀걸이의 명칭과 출토 위치가 잘못 알려진 상태로 2000년대까지 그 오류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인 1933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발굴된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발굴보고서가 2000년에야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황오동 귀걸이는 1949년 황오동 52호분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고분 역시 발굴 직후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두 귀걸이의 발굴 과정 및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의 신라 금귀걸이 연구 현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보물 제2001호 황오동 금귀걸이는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된 입체적이고 독특한 수하식의 형태가 중요한 특징인데, 지금까지는 이 수하식의 형태를 근대적 시각에서 “입체 펜촉형”으로 불려왔다. 본고에서는 이 수하식의 형태가 한국의 자생식물이자 약용식물로 알려진 “금낭화”의 꽃 모양과 상당히 유사함을 밝히고, 이러한 형태의 수하식 명칭을 향후 “금낭화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직까지 신라 금귀걸이에 대한 연구는 형식과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 귀걸이들이 내포한 문화사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주제어 Ⅰ

신라, 금귀걸이, 일제강점기, 금속공예, 금낭화(錦囊花)

I. 머리말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각종 금속공예품은 문헌자료가 풍부하지 않은 한국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물질문화적 자료로서 주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 이후 경주의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수많은 금제(金製) 공예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초기의 연구는 대부분 독특한 양식의 금관(金冠)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의 금관은 6점에 불과하다(국립경주박물관 2001: 20). 이들은 현존례가 매우 희소하고 형식이 일정하여 신라의 금속공예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유물이 남아 있는 이식(耳飾)들은 삼국시대의 금속공예 뿐만 아니라, 출토 고분의 편년과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다.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이식은 주환(主環)인 금속제 고리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장식이 달린 독특한 장신구로서, 보통 귀에 걸어 장식하는 귀걸이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이식 형태의 장신구 중에는 귀에 착장한 것이 아니라 관모(冠帽)나 허리띠에 매달아서 장식한 수식(垂飾)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으며, 발목 부근에서 출토된 예들도 있다. 즉, 현존하는 이식 형태의 장신구 중에는 실제 용도가 귀걸이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형식의 장신구의 용도를 모두 귀걸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형식적으로 귀걸이 모양을 한 삼국시대의 금속제 장신구들을 통칭하는 한자 용어인 “이식”과 실제 용도를 강조하는 한글 용어인 “귀걸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겠다.



사진 1. 보물 제455호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 신라 6세기



사진 2. 보물 제2001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신라 6세기

지금까지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이식은 수백여점에 달하는데, 특히 상당수의 유물들이 경주 지역의 신라 고분에서 출토되었다. 삼국시대 고분 출토 금속제 이식에 대한 연구는 경주의 신라 고분을 조사했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藤田亮策 1948),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유물의 형식분류와 편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신라 고분 출토 금귀걸이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주경미 1997), 신라 고분 출토 금속공예품에 보이는 독특한 누금세공기법(鏤金細工技法)이나 타출기법(打出技法) 등과 같은 뛰어난 금속 세공기법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개별 유물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향후 주요 유물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심도 깊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최근 보물 제455호로 재지정된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사진 1)와 보물 제2001호로 새로 지정된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사진 2)를 중심으로, 각 유물의 현황과 제작기법 및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두 금귀걸이는 현존하는 6세기 신라시대 금귀걸이 중에서도 독특한 양식과 근현대 신라사 연구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 특별한 작품으로서, 두 작품의 보물 지정 과정은 근현대기 신라 고고학과 미술사의 사학사적 변천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경주의 신라 고분 출토 금귀걸이의 발굴과 연구사를 간단하게 개괄한 후, 제 III장에서는 보물 제455호 노서동 금귀걸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제 IV장에서는 보물 제2001호 황오동 금귀걸이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을 고찰한 후, 지금까지 “입체 펜촉”형식으로 알려진 이 귀걸이의 수하식 명칭을 한국 자생화의 하나인 “금낭화(錦囊花)”형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삼국시대 및 신라 이식에 대한 연구는 형식과 제작기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 귀걸이들이 내포한 문화사적 의미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Ⅱ. 경주 출토 신라시대 금귀걸이의 발굴과 연구사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이후 유교적 사치 금제 풍속의 확산과 함께, 귀에 귀걸이를 걸거나, 목에 목걸이를 거는 사치 풍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귀걸이나 목걸이는 혼례식과 같은 특별한 때에만 착용하는 특수한 장신구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한

동안 보석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는 근대기 서양과 일본을 통해서 전해진 완전히 새로운 장신구 형식이며, 한국에는 아예 없었던 문화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20세기 초반부터 일본인들에 의해 시작된 고적조사를 통해 전국 각지, 특히 경상도 일대의 고분들에서 금속제 및 준보석제의 다양한 목걸이와 귀걸이들이 발견되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한국 고대의 독특한 장신구 문화가 고고학 및 고대사와 복식사 분야에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신라시대 금귀걸이의 연구사를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기, 1990년대 중반 이후 등 3기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고찰하겠다.

1.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경주 지역의 신라시대 고분에 대한 조사는 1906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초기의 조사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되지 않았다(이청규·김대환 2000; 차순철 2006; 김용성 2010; 김대환 2014). 경주 출토 신라시대 금속공예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목하게 된 계기는 1915년 하라다 요시토(原田淑人)가 조사한 경주 보문동 부부총의 발굴이었다. 당시 보문동 부부총에서 발굴된 2쌍의 금귀걸이 중에서 부인의 무덤에서 나왔다고 알려진 금제태환이식(金製太環耳飾) 1쌍은 섬세하고 화려한 누금세공기법으로 주환과 수하식까지 모두 섬세한 금알갱이와 금선을 가득 붙여서 장식을 한 뛰어난 작품으로서, 발굴 직후부터 신라의 대표적 금제 장신구로 알려져 왔다(사진 3). 이 금제태환이식은 피장자의 귀 부분에서 발견되어서, 이러한 형태의 장신구가 귀걸이였음이 확인되었다. 국보 제 90호로 지정된 보문동 부부총 금귀걸이는 주환의 표면에 작은 금알갱이와 금선을 붙여서 문양을 표현했는데, 이러한 금알갱이와 금선을 붙이는 방식이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의 금세공기법 중 하나인 필리그리(filigree)기법과 관련된 기법이라는 연구가 일제강점기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濱田耕作 1926). 이후 신라 금속공예는 서방,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전래된 누금세공기법의 영향을 받은 독특한 양식을 보여준다고 여겨져 왔다.



사진 3. 국보 제90호 보문동 부부총 금귀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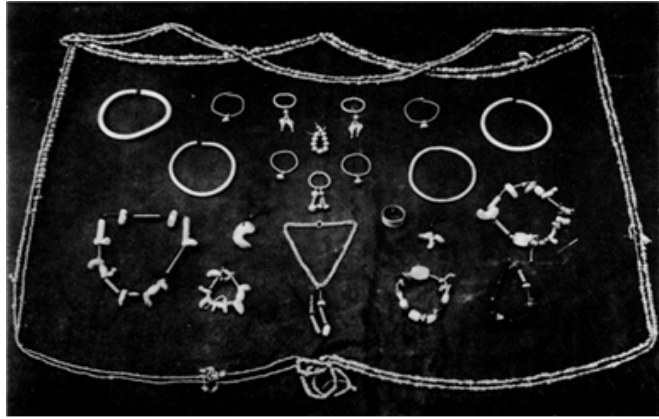


사진 4. 傳 居昌 발견 부장품 일괄(출처: 『朝鮮古蹟圖譜』 권 3, 276쪽, 도 811)

1916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한국내 고적조사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도록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를 전체 15권으로 간행하였다. 그 중에서 삼국시대 금속공예품과 관련된 자료는 마한시대, 백제시대, 임나시대, 옥저시대, 예(濊)시대, 고신라시대를 다루고 있는 제 3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朝鮮總督府 1916). 이 도록은 도판 설명이 매우 간략하지만, 1916년까지 알려진 한국의 고대 문화재에 대한 매우 귀한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당시 이 도록에 게재된 삼국시대의 금속제 귀걸이 관련 유물들은 ①고령 고분 발견 금환(金環) 1쌍(朝鮮總督府 1916: 73, 圖791, 圖792), ②김해 고분 발견 금환 1쌍(朝鮮總督府 1916: 276, 圖805), ③선산 수집 금환 1점(朝鮮總督府 1916: 276, 圖810), ④전 거창 발견 부장품 일괄품(사진 4, 朝鮮總督府 1916: 276, 圖811) 중에서 귀걸이로 추정되는 중앙의 유물 7점, ⑤진주 고분 발견 식부금환(飾附金環) 1점(朝鮮總督府 1916: 287, 圖849), ⑥경주 분황사 석탑의 석함 안에서 출토된 금제 귀걸이의 수하식으로 추정되는 장식품 2점(朝鮮總督府 1916: 382, 圖1045, 圖1046), ⑦경주 보문동 부부총 남편묘(夫墓)에 부장된 순금이식 1쌍(朝鮮總督府 1916: 347, 圖1135), ⑧경주 보문동 부부총 부인묘(婦墓)에 부장된 순금이식 1쌍(사진 3; 朝鮮總督府 1916: 351, 圖1160), ⑨경주군에서 발견된 순금이식 2쌍(朝鮮總督府 1916: 365, 圖1233) 등 10건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고령 고분 발견 금환과 김해 고분 발견 금환은 수하식이 없이 주환만 있는 형식이며, 경주 분황사 석탑에서 발견된 장식품은 주환 없이 수하식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명칭은 금환, 혹은 식부금환, 순금이식 등 여러 가지로 사용되었는데, 재질이 금

(金, gold)임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당시 도록에 게재된 10건의 유물 중에는 현재 소장처가 불확실한 곳도 있지만, 국보 제 90호로 지정된 경주 보문동 부부총 부인묘 발견 순금이식은 지금까지 발간된 한국 고고학 및 미술사 관련 출판물에서 대부분 논의될 만큼 계속 중요하게 여겨졌다.

1921년 경주에서 금관총의 발굴과 함께 고분 속에 숨겨져 있던 신라 금관이 천오백여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다시 드러내자,¹⁾ 일제하의 일본인 학자들은 신라 고분 속에 숨겨진 고대 황금 문화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금관총 발굴 이후 일제강점기의 경주 지역 고분 발굴 조사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금령총과 식리총, 서봉총 등 여러 고분들이 연이어 발굴조사되었다. 당시 발굴조사를 통하여, 일본 학자들은 신라 고분의 독특한 적석목곽분 구조와 고대 황금문화의 기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북방 기마민족의 남하설, 혹은 서방으로부터의 이주민설 등 국제적 관점에서 신라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기도 했다. 1930년대부터 일제의 전쟁 확산과 함께 총독부에서 고적조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되자, 경주 지역 고분은 1931년 설립된 조선고적연구회의 기부금에 의지하여 발굴되기 시작했다(김대환 2014: 10).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식민사학자인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 1874-1946)가 주도해서 1931년 창설한 조선고적연구회의 경주연구소는 1915년부터 활동하던 경주 고적보존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경주고적보존회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던 일본인 모로가 히데오(諸鹿央雄)는 경주 지역의 고분을 도굴하고 무단으로 빼돌리는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경주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결국 모로가 히데오는 1933년 4월 28일 경주박물관 관장의 신분으로 고분의 도굴을 행하다가 체포당하여 해임되었다(정인성 2009: 9-31). 당시 모로가 히데오가 얼마만큼 많은 경주 출토 유물을 빼돌려서 팔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대구 지역에서 각종 유물 수집에 열광하던 오구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의 수집품 중에 전 금관총 출토 금제수식 및 칼장식, 곡옥, 옥충날개편 등 여러 점의

1) 금관총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발굴보고서는 朝鮮總督府, 1924-1927, 『慶州金冠塚と其遺寶』本文上冊 및 圖版上冊, 圖版下冊, 朝鮮總督府 등 3권으로 발간되었다. 201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금관총 출토 삼환두대도에서 “兪斯智王”이라는 명문을 새로 찾아내어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국립중앙박물관, 2014), 2015년에는 금관총 유구를 재발굴하고 2권의 보고서를 새로 간행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6; 국립경주박물관 2016). 이외 금관총 조사에 대해서는 김대환 2014 및 윤상덕 2016 참조.

장신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286-287),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된 금관총조차도 출토품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밀반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경주 고분의 무단 발굴과 유물의 밀반출은 1940년대까지 일본인 학자 및 고분 발굴 관계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1930년대 이후 발굴된 유적들은 대부분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서, 출토 유물의 현황이 거의 파악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조선고적연구회에서 발굴한 여러 고분들 중에서 신라의 금귀걸이 및 금공예품의 연구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33년 4월 초에 발굴된 경주 노서리(이후 노서동) 215번지 고분이다. 이 고분은 1933년 4월 3일 노서동 215번지의 주민 김덕연(金德彦)이 농사 일을 하던 중 우연히 유물을 발견한 후, 4월 5일에 경주경찰서에 유물을 신고하여 확인되었다. 4월 7일 서울의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던 아리미쓰 교이찌(有光教一)가 경주로 내려와서 신고 유물을 조사한 후,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그 일대를 발굴조사하였다(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123-124). 아쉽게도 당시 발굴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채, 1934년 조선고적연구회는 당시 발굴한 유물의 일부를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하였다(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125). 이후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존재는 한동안 거의 잊혀졌으며,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지지 못했다.

2. 광복 이후~1990년대 초반

1945년 광복 이후 한동안 경주 지역의 고분 발굴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1946년 경주 노서동에서 이루어진 호우총의 발굴은 1933년에 행해진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호우총 자체의 발굴 성과가 높이 평가되면서 발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존재는 거의 잊혀지게 되었다. 호우총과 은령총의 발굴 이후에도 경주 지역의 고분 조사는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발굴조사의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출토 유물들만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

신라 고분 출토 각종 금속공예품, 특히 금제 장신구는 1957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한 대규모의 한국미술 명품전(Masterpieces of KOREAN Art)이 미국 전역에서 순회전으로 개최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전시에는 일제강



사진 5. 경주 고분 출토 각종 금귀걸이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57, p. 44)

점기에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총 금관, 금령총 금관, 서봉총 금관 등 3점의 금관과 함께, 금관총 출토 3쌍의 금귀걸이(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57: 35-36)와 경주 일대에서 출토된 4쌍의 금귀걸이 등 총 7쌍의 금귀걸이가 출품되었다(사진 5).

당시 출품되었던 경주 출토 금귀걸이 4점은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금제태환이식(사진 5-13), 경주 황오리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사진 5-14), 경주 황오리 52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金製細環耳飾, 사진 5-15),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금제세환이식(사진 5-16)이다. 그런데, 당시 흑백으로 발간된 영문판 전시 도록에서는 일부 유물의 설명이 틀리게 되어 있어서, 당시 전시 담당자들이 경주 출

토 금귀걸이들의 출토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도록에서는 경주 황오리 52호분 금제태환이식인 사진 5-14번을 경주 보문리 출토품으로 기술했고, 경주 보문동 부부총에서 출토된 사진 5-15번의 금제세환이식은 경주 황오리 52호분 출토품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저질렀다(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57: 43). 이러한 금귀걸이 출토지의 오류 기술은 이후에 국내외에서 발간된 각종 전시 도록에서 계속 이어졌다. 주목되는 점은 광복 이후 새로 발굴되어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았던 경주 황오리 52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과 태환이식이 모두 한국 미술의 명품으로서, 외국 전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한국과 일본의 외교가 정상화되자, 1966년 한일 문화재 반환협정을 통해서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여러 점의 한국 문화재들이 환수되었다. 당시 환수된 문화재들 중에서는 1934년 조선고적연구회가 보고서 발간을 빌미로 무단반출하여 유물이 서울과 도쿄에 분산되어 있었던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일괄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당시 환수를 기념하여 노서동 출토품 중에서 특별히 조형성이 뛰어난 금제팔찌, 금제귀걸이, 금제목걸이 세 점이 각각 보물 제454호, 보물 제455호, 보물 제456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 지정 보고서에는 유물의 사진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물 제455호로 지정된 노서동 215번지 금귀걸이의 형태가 일반에게 공개된 적은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재관리국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가 기관에서는 한국 문화재에 대한 대형 도록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1971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국보와 보물에 대한 최초의 도록인 『문화재대관(文化財大觀)』을 발간하였는데, 그 중에서 『문화재대관 보물편(하)』에 처음으로 보물 제455호 금귀걸이가 수록되었다. 그런데, 이 도록의 설명문에서는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귀걸이의 귀향과 환수에 대해서 서술했지만, 해당 도판은 엉뚱하게 경주 보문동 부부총에서 출토된 국보 제90호의 금귀걸이 사진을 게재해 놓았다(문화재관리국 1971: 100-101). 그 이듬해인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간한 『국립중앙박물관명품도감』에서는 신라 금귀걸이 명품 2쌍을 소개했는데, 여기에 게재된 금귀걸이 2쌍은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국보 제90호 금제태환이식이다(국립중앙박물관 1971: 도판 12). 이 두 쌍의 금귀걸이는 이후 거의 모든 한국미술 관련 도록에서 신라 금속공예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소개되었다. 1972년 발간 명품도감의 도판 설명문에서도 역시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을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품으로 잘못 기술해 놓았는데, 이 오류는 이후 도록들에도 계속 이어졌다.

1973년 김재원이 편찬한 『한국미술』 도록에서는 보문동 부부총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의 도판을 게재하면서, 황오동 금귀걸이의 출토지를 경주 황남리로 기술하였다. 이는 1970년대 발간된 국내 도록에서는 유일하게 황오동 금귀걸이를 노서동 출토품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서 주목된다(김재원 1973: 266). 그렇지만 1974년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한국고미술』 도록에서는 다시 보문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를 게재하면서 황오동 금귀걸이를 노서동 금귀걸이로 잘못 소개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발간된 한국 미술 관련 도록에서는 모두 황오동 금귀걸이를 노서동 금귀걸이로 잘못 인식하거나 출토지 미상으로 소개하고 있다(한병삼 편 1975: 40; 국립중앙박물관 1976: 321; 최순우 1978: 21; 한병삼 책임감수 1980: 214; 국립중앙박물관 1986: 196-197;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1: 185).

신라의 금귀걸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보문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라는 두 쌍의 명품 귀걸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당시 연구는 모두 황오동 금귀걸이를 노서동 출토품이자 보물 제455호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각종 도록의 발간 및 경주 지역의 다양한 고고학적 성과들에 힘입어, 1970-80년대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신라 금귀걸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72년 이토 아키오(伊藤秋男)가 신라 고분 출토 이식의 형식분류를 통해서 신라 고분의 상대편년을 시도한 이후(伊藤秋男 1972), 신라 이식의 연구는 이식 자체의 형식 분류 및 출토 고분의 편년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이인숙 1974, 1988, 1992; 윤세영 1984; 이한상 1995, 1998, 1999, 2002; 주경미 1996).

3. 199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신라의 금귀걸이에 대한 연구는 제작기법 연구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귀걸이의 태환 제작기법 및 표면장식기법인 누금세공기법과 타출기법 등 다양한 삼국시대 이식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주경미 1995; 주경미 1997; 이영희 1997; 김문심 2000; 권향아 2002a; 2002b). 이와 함께 신라 고분 출토 각종 금속공예품의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보존과학 분야에서도 누금세공기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한상의 주도로 진행된 『신라황금』 특별전에서는 금관과 금귀걸이를 비롯한 다양한 신라 고분 출토 금공예품이 대거 공개되고 각 공예품들의 제작기법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이 도록에서는 1933년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발굴 조사에 참여했던 일본인 학자들의 조언에 의해서, 그동안 경주 노서동 출토품으로 잘못 알려졌던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정확한 출토지가 황오동 52호분임을 처음으로 밝혔다(국립경주박물관 2001: 71). 이후 이한상은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와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귀걸이를 비롯한 6세기의 주요 태환이식에 대한 자세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이한상 2002).

오랫동안 국내외에서 보물 제455호로 잘못 알려진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신라 금속공예품을 대표하는 뛰어난 양식을 가진 금속공예품이다. 2009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유물 자체의 양식적 우수성을 중시하여, 보물 제455호의 명칭을 노서동 금귀걸이에서 황오동 금귀걸이로 변경했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환수된 반환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중요시되어 함께 반환된 일괄품들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던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귀걸이는 소장경위 자체가 한국의 근대 문화사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2018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원래 지정 의미를 존중하여 보물 제455호의

명칭을 노서동 금귀걸이로 재변경하였다. 이와 함께 양식적으로 우수하여 오랫동안 신라의 대표적인 금귀걸이로 알려져 왔던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은 별도의 보물 제2001호로 새로 지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 신라 금귀걸이에 대한 연구는 귀걸이의 착장방식 및 외국과의 교류 관계에 대해서 연구되어 왔다(이희준 2002; 주경미 2003, 2012; 이한상 2009a, 2009b, 2011). 한편, 2000년대 이후 양산, 울산, 언양, 경산 등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신라의 금귀걸이들이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었다. 또한 신라 이외의 지역에서도 다양한 삼국시대의 금귀걸이들이 발굴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 출토 유물들에 대한 연구는 향후 좀 더 다각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²⁾ 다음으로는 최근 보물로 재지정된 경주 출토 두 쌍의 신라 금귀걸이에 대해서 각각 현황과 양식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Ⅲ. 보물 제455호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1933년 4월 3일 경주시 노서동 215번지에 살던 김덕언은 경작을 하던 중 우연히 곡옥과 금제태환이식 한 점을 비롯한 유물 몇 점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 유물을 발견하고 이를 뒤인 4월 5일에 경주경찰서에 발견 유물을 가지고 가서 신고했다. 경주경찰서의 보고를 받은 조선총독부 사무국에서는 서울의 총독부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던 아리미쓰 교이찌를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경주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유물은 금제태환이식 1점, 은제팔찌 1점, 금제반지 1점, 은제반지 1점, 금제소환연접구체 장식 33점, 각종 곡옥 4점 등이었다고 한다(사진 6;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123).

신고 유물을 조사한 아리미쓰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1주일간 노서동 215번지의 폐고분을 발굴조사했다. 그리하여 흙 속에 숨겨져 있던 금제태환이식 1점을 찾아내었으며, 그 외에 금제소환연접구체 장식과 곡옥을 비롯한 다양한 유물들을 발굴하였다. 태환이식에서 약 40cm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2쌍의 은제 및 금제 팔찌가

2) 최근 부산 복천박물관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귀걸이에 대한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이 전시에서는 최근 발굴된 강원도 춘천시 중도 유적 출토 고구려계 금귀걸이를 비롯하여, 백제, 신라, 가야의 금귀걸이들이 다수 출품되었다. 이 특별전의 도록은 한국의 고대 귀걸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초 연구 자료로서 주목된다(복천박물관 2018).



사진 6.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귀걸이 및 금제 장식류. 1933년 4월 경주경찰서의 경관이 촬영한 신고품 일괄(유리건판 사진)



사진 7. 경주 노서동 215번지 고분 발굴 상태. 중앙 하단 금귀걸이 1점과 향우측 상단의 팔찌 노출 장면(유리건판 사진)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금제반지와 은제반지들이 그 서쪽 부분에서 여러 점 발견되었다(사진 7). 유물 배치 상태로 볼 때, 태환이식과 함께 발견된 금제소환연접구체 장식들은 목걸이의 일부로 추정되었다. 그 외에 다수의 곡옥과 반지, 각종 구슬류, 토기 등이 발굴되었다.

조선고적연구회는 발굴조사를 마치고 1년이 지난 1934년 8월 23일, 당시 발굴된 유물 중의 상당수를 보고서의 간행과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빌미로 일본으로 반출하여, 동경제실박물관(東京帝室博物館, 현재의 東京國立博物館)에 기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래 한 쌍의 귀걸이였던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귀걸이는 각각 도쿄와 서울로 나누어지게 되었다(사진 8). 아리미쓰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그가 피장자의 오른쪽 귀 위치에서 발굴한 금귀걸이 한 점은 도쿄국립박물관으로 보내고, 경주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금귀걸이 한 점은 서울의 총독부박물관에 보관했다고 한다(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125).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협정에 의거하여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문화재들이 국내로 반환되면서, 1966년 5월 28일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유물들은 국내로 반환되었다. 발굴 직후에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채, 일본으로 분리되어 반출되어 오랫동안 따로 떨어져 있었던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귀걸이는 환수 이후에 다시 한 쌍으로 합쳐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2점의 유물은 발굴 당시부터 각각 발견되고 내내 따로 보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별개



사진 8. 경주 노서동 215번지 출토 금귀걸이
(유리건판 사진)

의 유물 번호를 가지고 있다. 김덕언이 처음 발견하여 경주경찰서에 신고했다가 이후 서울 총독부박물관에 남겨진 귀걸이의 유물 번호는 본관13614이며, 아리미쓰가 발굴하여 도쿄로 가져갔다가 1966년에 반환된 유물의 번호는 신수1286이다. 두 점은 서로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본으로 갔다가 되돌아온 신수1286번은 주환의 일부가 조금 찌그러진 상태이다.

1933년 발굴된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유물들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서울과 일본 도쿄 등 두 곳으로 나뉘어 분산되었다가 반환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미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김정학(1965)과 이난영(1976)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신문 칼럼에서는 반환된 유물 중에서 목걸이 사진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귀걸이의 형태는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다. 1967년 4월 20일 문화재위원회 제 1분과위원회에서는 당시 일본에서 반환된 문화재 중에서 주요 유물들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했다. 이때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져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 노서동 215번지 고분 출토 금팔찌와 금귀걸이, 금목걸이가 각각 보물 제454호, 제455호, 제456호로 지정되었다. 당시의 보물 지정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서 약탈되었던 문화재의 환수를 기념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금귀걸이나 금목걸이 자체의 양식적 우수성이나 다른 신라 고분 출토품들과의 비교 등이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신라 고분 출토의 수많은 금속제 귀걸이 중에서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귀걸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1970년대 이후부터 발간된 한국 문화재 관련 도록에서는 모두 보물 제455호 노서동 215번지 금귀걸이의 사연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서동 금귀걸이의 정확한 형태가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주환 일부가 찌그러지고 일견 평범해 보이는 노서동 금귀걸이 대신에, 이보다 좀 더 조형성이 뛰어나고 주환 전체가 완벽하게 보존된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가 보물 제455호로 잘못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한동안 보물 제455호 노서동 금귀걸이의 설명문에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의 사진이 부착된 도록들이 다수 발간되었다.

발굴한지 67년이 지난 2000년, 노서동 215번지 고분의 발굴보고서가 일본에서 정식으로 간행되면서(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노서동 금귀걸이의 도면과 흑백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사진 8). 그리하여, 오랫동안 보물 제455호 금귀걸이의 사진이 잘못 공개되어 왔음이 정식으로 밝혀지고 두 귀걸이의 현황이 이한상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사되었다(이한상 2002).

보물 제455호로 지정된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 1쌍은 커다란 태환식의 주환 아래 작은 영락들이 여러 개 달린 소환연접구체 형태의 중간식과 금판으로 만든 심엽형(心葉形)의 수하식이 달린 전형적인 신라의 금제태환이식이다(사진 1).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귀걸이 2점이 1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점의 전반적 크기와 형태는 거의 유사하다. 전반적으로 금색이 찬연하고 부식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두 점 모두 전체 길이는 8.9cm이다.

주환은 얇은 금판 3장을 감아 말아서 굵은 파이프형태의 고리 형태로 만든 것으로, 지름은 대략 3.4cm이다(사진 9). 도넛 형태의 주환 단면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주환의 측면 두께는 최대 2.2cm 정도로 상당히 굵은 편이다. 주환의 양쪽 끝 부분은 얇은 금판을 덧대어 땀하여 막아 놓았는데, 한쪽 마개 부분에 작은 구멍을 뚫어 놓아서, 땀을 할 때 터지지 않도록 장치하였다.

주환 아래에는 얇은 금판을 말아서 만든 속이 빈 파이프 형태의 첫 번째 연결고리가 달려 있다. 이 첫 번째 연결고리는 가로 최대 3.3cm이며 세로는 2.6cm이다.



사진 9.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주환 부 1. 측면



사진 10.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중간식 세부. 소환연접구체와 영락들

이 연결고리는 주환에 걸린 윗부분이 다소 가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두께가 굵어지는 형태의 고리이다. 위쪽 부분의 단면 지름은 4.8mm, 아래쪽의 두꺼운 부분 지름은 6.4mm이다. 첫 번째 연결고리 아래에는 속이 찬 지름 2.3mm의 가느다란 금봉(金棒)을 구부려서 만든 작은 두 번째 연결고리가 달려 있다. 이 고리는 최대 지름 1.26cm 크기의 둥근 고리 모양으로, 여기에 중간식이 연결된다.

중간식은 신라시대 금귀걸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환연접구체 한 개와 소환연접반구체 한 개를 연결해서 만든 형식으로, 소환연접구체와 반구체의 주위에는 얇은 금판을 잘라 만들고 금선으로 꼬아서 연결한 영락들이 잔뜩 달려 있다(사진 10). 두 점 모두 소환연접구체에 달린 영락은 17개, 소환연접반구체에 달린 영락은 15개이다. 소환연접구체는 새김눈금선을 돌려서 만든 지름 4.2mm의 중앙 소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지름 4.5-5.4mm 크기의 작은 소환 5개를 붙여서 만든 반구체를 맞붙여서 만들었다. 특이한 점은 소환연접구체의 윗면을 형성하는 소환의 표면에는 새김눈을 2단으로 새겼고(사진 11), 소환연접구체의 아래쪽과 소환연접반구체를 형성하는 소환들은 1단의 새김눈을 새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 소환들의 바닥면은 납작하여, 소환을 형성한 금선의 단면이 원형이 아니라 반원형임이 확인된다(사진 12).



사진 11.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중간식 세부. 소환연접구체의 2단 새김눈 소환



사진 12.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중간식 세부. 소환연접반구체의 아래면과 영락들

소환연접구체와 반구체에 매달린 영락들은 지름 0.7mm의 가느다란 금선을 이용하여 각각 꼬아서 매달았으며, 영락의 형태는 가늘고 긴 잎사귀 모양이다(사진 13). 얇은 금판을 잘라서 만든 영락의 크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길이 9-9.6mm, 폭 6-6.6mm 정도의 크기이다. 잎사귀 모양을 자른 금판은 안쪽을 오목하게 쳐서 입체감 있게 만든 후, 테두리와 가운데 부분에



사진 13.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의 중간식 세부. 새김눈금선으로 장식된 영락들

에 가느다란 새김눈금선을 붙여 장식하였다. 새김눈금선은 얇은 영락을 입체감 있게 보이도록 하며, 빛을 반사하여 매우 화려한 인상을 준다. 중간식의 영락 중 일부 표면에는 흠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직도 잔존하는데, 향후 성분 조사를 하여 불순물이면 세척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 소환연접구체와 반구체에 영락을 매다는 방식은 다소 불규칙하여, 하나의 소환에 2개의 영락이 매달리기도 하고, 혹은 3개의 영락이 매달리기도 한다.

주환의 연결고리와 중간식 사이에는 납작한 금선을 관통시켜서 서로 연결했는데, 그 금선의 맨 아래 부분에는 얇은 금판을 심엽형으로 잘라서 만든 수하식을 연결하여 마무리하였다. 심엽형 수하식의 크기는 가로 2.4cm, 세로 2.1cm 정도의 크기이며, 테두리와 중앙에 역시 새김눈금선을 3줄씩 붙여서 입체감 있게 장식하였다(사진 14).



사진 14. 노서동 금귀걸이의 수하식

노서동 금귀걸이는 전체적으로 장식이 화려하고 정교하며, 다양한 형태의 새김눈금선을 이용한 섬세한 금세공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와 비슷한 중간식과 수하식을 가진 형식의 금귀걸이들은 경주 황남대총과 보문동

부부총 등 여러 곳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국보 제90호로 지정된 경주 보문동 부부총 출토 금귀걸이의 중간식과 수하식은 기본적인 형태가 노서동 215번지 출토 금귀걸이와 상당히 유사한 양식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주환과 수하식을 모두 금알갱이로 정교하게 장식한 보문동 귀걸이와는 달리 노서동 금귀걸이에는 금알갱이를 장식하는 그레놀레이션(granulation) 기법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대신 화려한 새김눈금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새김눈금선을 금판에 붙여 장식하는 기법은 금알갱이를 붙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므로, 노서동 금귀걸이도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한 것이다. 전체적인 조형은 신라 고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의 일반적인 양식을 따르면서도, 중간식의 세부 및 수하식과 영락 등에 장식된 정교한 새김눈금선의 장식 기법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을 보여준다.

2009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30여년간 보물 제455호로 잘못 알려졌던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의 양식적 우수성과 출토지를 고려하여, 보물 제455호의 명칭을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1967년 보물 제455호로 지정된 노서동 215번지 출토 금귀걸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반출되었다가 환수된 것으로, 근대기 신라 고분 출토 문화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문화사적 의미를 존중하여 같은 고분에서 출토되었다가 환수된 목걸이, 팔찌, 귀걸이가 함께 보물로 지정된 것이다. 그러므로, 2009년의 명칭 변경은 1996년 한일협정에 의한 일본의 문화재 반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유물에 대한 학술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정적 오류였다. 근대 문화유산 및 한일 문화재 반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이 행정적 오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2018년 경주 노서동 215번지 출토 금귀걸이는 일괄유물인 보물 제454호, 제456호와 함께 보물 제455호의 위치를 되찾게 되었다.

IV. 보물 2001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

1957년 미국에서 개최된 한국미술 명품전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이후, 신라시대 고분 출토 금귀걸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어 온 경주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은 오랫동안 보물 제455호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사진 2).



사진 15. 경주 황오동 52호분
금귀걸이 출토 상황
(유리건판 사진)



사진 16. 금장식소도
길이 21.9cm. 경주
황오동 52호분 출토



사진 17. 금제세환이식. 경주 황오동 52호분
출토. 신라 6세기.

이 금제태환이식은 1949년 7월 경주 황오동 52호분에서 출토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경주 황오동 52호분의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출토 상황이나 위치, 공반 유물 등은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 황오동 52호분의 발굴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기사와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유리건판사진(사진 15) 등을 통해서 일부만 알려져 있다. 『경향신문』에 의하면 1949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경주 황오리 52호분의 발굴작업을 당시 박물관 부관장인 이흥직의 책임 아래에서 행했으며, 황금장식소도(黃金裝飾小刀子) 1점(사진 16), 황금제귀걸이 2쌍(사진 2, 사진 17), 은제팔찌 4점, 은제허리띠, 각종 토기와 마구(馬具) 및 철부(鐵斧) 10여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편집부 1949). 이 고분은 아직까지 구조 및 공반 유물에 대한 자료가 자세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같은 고분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금제태환이식(도 2)과 금제세환이식(도 17)의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두 귀걸이에서 확인된 신라시대의 뛰어난 누금세공기법의 특징과 독특한 수하식 형태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2018년 보물 제2001호로 지정된 금제태환이식은 전체 길이 8.8cm의 크기이다. 얇은 금판 3장을 말아서 만든 속이 빈 주환은 지름 3.4cm에 측면 두께는 최대 2.3cm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는 유리건판에 의하면, 두 점의 태환이식은

피장자의 머리 부근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발견되었으며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팔 부근에서 팔찌가 발견되었다(사진 15). 이 귀걸이는 태환식의 주환 아래에 작은 영락들이 달린 소환연접구체와 소환연접반구체가 연결된 중간식이 달려 있고, 맨 아래에는 두 장의 금판을 붙여 만든 입체 펜촉형 수하식이 달린 형식으로, 6세기 중후반의 신라 금귀걸이 양식을 보여준다(사진 2). 이 귀걸이는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에 파손되거나 찌그러진 흔적이 거의 없이 완벽하게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섬세한 세공기법이 매우 뛰어난 보기 드물게 훌륭한 작품이다. 주환과 중간식, 수하식은 금색이 찬연한 것으로 보아, 순도가 매우 높은 금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주환과 중간식을 연결하는 첫 번째 연결고리는 안쪽에 푸른색 녹이 보이므로 금동제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사진 18). 주환의 양쪽 끝 부분은 타원형의 얇은 금판을 땀으로 붙여 마감했는데, 땀 하는 과정에서 터지지 않도록 미리 깔끔하게 구멍을 뚫어 놓은 섬세한 제작방식이 돋보인다.

주환에 연결된 첫 번째 연결고리는 윗부분이 가늘고, 아래쪽으로 가면서 점점 굵어지는 형태로서, 위쪽의 단면 지름은 3.5mm, 아래쪽의 단면 지름은 4.18mm이다. 첫 번째 연결고리 아래에는 얇은 금판을 말아서 만든 작은 연결금구를 바로 매달고 중간식을 연결했다. 금판으로 만든 연결금구는 폭 4.9mm, 지름 4.8mm의 원통형이다.



사진 18. 황오동 금귀걸이의 주환과 연결금구



사진 19. 황오동 금귀걸이의 중간식 세부

중간식은 새김눈금선으로 만든 작은 원을 붙여서 만든 소환연접구체 한 개와 소환연접반구체 한 개를 이어 붙여서 만들었다. 위쪽의 소환연접구체는 지름 5mm 정도의 중앙 소환 주위에 지름 7mm 내외의 작은 소환 6개를 돌아가면서 붙여서 윗면을 만들고, 아래면에도 소환 6개를 붙여서 만들었다. 소환연접구체의 전체 최대 지름은 16.9mm이다(사진 19). 소환연접구체와 반구체의 사방에는 영락을 잔뜩 매달았는데, 영락을 포함한 중간식의 최대 지름은 27.2mm이다. 소환연접구체와 소환연접반구체를 형성하고 있는 소환들은 모두 표면에 가느다란 새김눈을 1단 돌린 금선으로 만들었으며, 금선의 단면은 아래부분이 평평하여 반원형에 가깝다.

영락은 노서동 금귀걸이와 마찬가지로, 얇은 금판을 길고 뾰족한 앞사귀 모양으로 잘라내어 입체감을 살짝 준 후, 테두리와 중앙 부분에 새김눈금선을 돌려 붙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앞사귀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세로 8-13mm, 가로 4-6mm 정도의 크기이다. 앞사귀의 바탕판 두께는 0.4mm 정도로 매우 얇지만, 테두리에 새김눈금선을 돌리고 앞사귀 자체도 오목하게 표현되어, 상당히 입체감 있게 보인다. 중간식 주위에 매달린 영락의 숫자는 두 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 한 점은 위쪽에 18개의 영락이 매달려 있고, 아래에는 12개의 영락이 매달려 있다. 다른 한 점은 위쪽에 원래 18개의 영락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꼬은 금선만 남기고 없어져서 현재는 17개가 매달려 있다. 아래쪽에는 다른 한 점과 같이 12개의 영락이 매달려 있다.

황오동 금귀걸이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부분은 맨 아래에 달린 수하식이다. 이 수하식은 펜촉 모양으로 자른 두 장의 금판을 두드려서 입체감 있게 만든 후 뿔뿔해서 붙여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입체 펜촉형”이라고 알려져 온 형식이다(사진 20). 수하식은 가로 18mm, 세로 28.4mm, 최대 두께 7.4mm의 크기로, 윗부분 테두리와 중앙 부분에는 새김눈금선을 붙여 장식했으며, 테두리의 새김눈금선은 끝부분을 위쪽으로 둥그렇게 말아서 마무리했다. 테두리와 중앙에 부착된 새김눈금선의 주위에는 아주 작은 금알갱이들을 일렬로 붙여서 장식했으며, 펜촉의 맨 아래 뾰족한 부분에도 역시 금알갱이를 붙여서 문양을 표현하였다. 특히 말아 올린 새김눈금선의 테두리에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한 세공기술은 지금도 복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뛰어나고 발전된 수준을 보여준다(도 21). 사용된 금알갱이의 크기는 지름 0.2-0.6mm 정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새김눈금선과 작은 금알갱이를 금판에 붙여서 장식하는 기법은 누금세공기법 중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그레놀레이션 기법의 수준을 보여준다.



사진 20.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수하식



사진 21.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수하식 세부

누금세공기법은 원래 서아시아에서 시작된 정교하고 화려한 금은세공품의 장식기법으로,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이 기법으로 제작된 금속공예품이 드문 편이다. 경주의 신라 고분에서는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된 금제 장신구들이 종종 출토되는데,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제작기법과 아름다운 조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은 현존하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이식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완벽한 조형성과 뛰어난 제작기법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서, 동시대의 고분 출토품 중에서도 매우 우수한 금속공예품이다.

이 고분에서 함께 출토되었다고 알려진 금제세환이식(사진 17)도 매우 뛰어난 양식을 보여주는 훌륭한 금속공예품이다. 이 금제세환이식은 전체 길이가 7.95cm 정도이며, 주환의 지름은 2.8cm 정도이다. 주환은 고리 윗부분이 수작되어 서로 붙어있는 상태인데, 이는 주환이 금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속에 다른 금속심이 들어있는 동지금장(銅地金裝), 혹은 철지금장(鐵地金裝)의 재질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환의 재질에 대해서는 향후 성분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주환의 단면은 원형이며, 단면 지름은 태환이식의 연결고리와 마찬가지로 윗부분이 조금 가늘고 아래 부분이 약간 두꺼운데, 4-4.7mm 정도이다.

주환 아래에는 지름 11-12mm 정도의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매단 후, 그 아래에 장방형에 가까운 중간식을 달았다. 중간식의 크기는 두 점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 점은 17.4×9.8mm, 다른 한 점은 17.7×9mm의 크기이다. 중간식은 방형의 금판 위에 2장의 꽃모양 금판을 아래와 위에 씌워서 연결한 것으로, 금판의 외곽선을 따라서 그 위에 얇은 금선을 붙이고, 다시 그 주위에 작은 금알갱이들을 붙여서 화려하게 장식했다(사진 22). 표면을 장식한 금선의 두께는 0.5mm이며, 금알갱이의 지름은 0.2-0.4mm이다. 금선과 금알갱이로 섬세하게 장식한 이 중간식은 신라시대 누금세공기법의 발달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일부 금알갱이 중에는 원래의 위치에서 다소 벗어난 곳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금제세환이식 맨 아래에 장식된 수하식은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금제태환이식의 수하식과 거의 유사한 입체 펜촉형 장식인데, 앞뒤에 각각 지름 1cm 정도 크기 원형의 약간 오목한 금판을 영락으로 장식한 점이 차이가 있다(사진 23). 이 수하식과 영락은 모두 테두리에 새김눈금선과 작은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했는데, 특히 금알갱이를 붙여서 장식한 수하식 끝부분의 문양은 금제태환이식의 문양 표현과 공통된 양식을 보여준다.

황오동 52호분에서 출토된 금제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의 수하식으로 사용된 입체 펜촉형 장식은 신라 고분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5세기 말엽부터 6세기 중반경에 유행하는 독특한 형식의 수하식이다. 이러한 형식 중에서 비교적 이른 양식으로 보이는 것은 장식이 별로 없고 단순하게 표현된 수하식 형태를 가진 금귀걸이들로서,



사진 22.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의 중간식 세부



사진 23.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세환이식의 수하식

경주 황오동 16호분, 경주 계림로 14호분, 경주 황오동 100번지 2호묘 등에서 출토된 세환이식들이 있다(사진 24). 또한 보물 제557호로 지정된 삼성미술관 소장 금귀걸이와 보물 제1921호로 지정된 양산 금조충 금귀걸이도 모두 입체 펜촉형의 수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수하식을 입체 펜촉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이 금귀걸이들이 제작되었던 신라시대에는 이러한 형태의 근대적 펜촉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명칭 자체는 근현대인들의 시각적 편의성을 반영한 명칭이다. 삼국시대 귀걸이의 세부 명칭 및 조형적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당시 귀걸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희소하기 때문에 이 귀걸이들에 표현된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그렇지만, 가야시대 귀걸이 중에는 산치자 열매를 닮은 장식들이 많아서 산치자형 수하식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자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근대적 명칭보다 자연물의 명칭을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진 24. 금세환이식의 수하식 세부.
경주 황오동 100번지 2호묘
출토, 신라 5-6세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박물관 소장



사진 25. 금낭화의 꽃 줄기. 필자 촬영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를 비롯하여 보물로 지정된 금귀걸이 3점의 수하식으로 사용된 입체 펜촉형 장식과 가장 유사한 자연물 형상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한국의 자생 식물이자 약용 식물로 알려진 금낭화(錦囊花, *Dicentra spectabilis*)의 꽃 형태이다(사진 25). 금낭화는 머느리주머니, 며늘취, 등모란 등으로 불리우는 현 호색과에 속하는 숙근생 다년초로서, 지리산 피아골, 설악상 봉정암, 전북 완주군 동상면, 춘천시 동산면 구절산 일대 등 전국의 산악 지역의 반그늘 지역에서 집단으로 자생하는 꽃이다(정연권 1993; 허권 외 2000; 이석우·노재현·오현경 2011). 자생화로서의 금낭화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자생지가 본격적으로 확인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문헌기록에서는 조선 전기 성현(成僎, 1439-1504)의 문집인 『허백당집(虛白堂集)』에 나오는 시 구절에서 금낭화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전기부터 조경 식물로 활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이석우·노재현·오현경 2001: 75). 또한 금낭화는 뿌리줄기에 프로토피인 함유되어 있어서 피를 잘 고르게 하고 종기를 없애주는 약효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전통 약용 식물로 알려져 왔다(정연권 1993: 76). 최근 금낭화에 대한 연구는 자생지 군락의 환경 보호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천연기념물 지정, 그리고 자생식물 인공 육성과 약용 식물의 개발 등을 위해서 식물학계 및 조경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필자는 2014년 산사 방문 도중에 금낭화 꽃 군락을 처음 본 이후, 그 형태가 신라 시대 귀걸이의 소위 입체 펜촉형 장식과 상당히 유사함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왔다. 이 꽃은 초봄에서 여름에 피는데, 긴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매달려 핀다. 꽃의 형태는 주머니, 혹은 하트 모양이며, 붉은색의 외측 꽃잎 2개 아래에 돌기 모양의 좁고 하얀 내측 꽃잎이 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꽃이 활짝 피기 전에는 하트 형태에 긴 돌기가 달린 모양으로 보이지만, 꽃잎이 활짝 개화하면 하트형의 윗부분 꽃잎이 양쪽으로 벌어져 끝부분이 말려 올라가고, 그 안쪽으로 하얀 돌기 모양의 꽃잎이 보이는데 그 한 가운데에는 꽃잎이 겹쳐져서 긴 삼각형의 띠처럼 보인다.

이러한 금낭화 꽃의 형태는 경주 황오동 100번지 2호묘 출토 금귀걸이(사진 24)나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의 수하식(사진 20) 형태와 상당히 밀접한 조형적 공통성을 보여준다. 황오동 100번지 2호묘의 단정한 수하식은 꽃잎이 벌어지기 전의 금낭화 꽃봉오리 형태에 가까우며,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귀걸이의 화려한 수하식은 꽃잎이 활짝 핀 상태의 금낭화 꽃모양에 가깝다. 특히 황오동 52호분 금귀걸이의 수하식에는 양쪽 어깨 부분의 새김눈금선이 금낭화 꽃잎처럼 양쪽으로 둥글게

말려 올라가 있으며, 중앙 가운데 부분에는 가느다란 삼각형의 띠 모양으로 새김눈 금선을 붙여 장식하여, 좀 더 금낭화 꽃 모양과 가깝게 조형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형적 유사성으로 볼 때, 이 수하식의 형태는 한국 산지(山地)의 자생식물인 금낭화의 꽃을 조형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필자는 지금까지 국적을 알 수 없었던 근대적 명칭인 입체 펜촉형이라는 명칭 대신, 한국 자생식물이자 전통적인 조경 및 약용 식물로 알려져 온 금낭화 꽃과의 조형적 친연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이 수하식의 명칭을 “금낭화형(錦囊花形)”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제안한다.

일찍부터 보물 제455호로 잘못 알려진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과는 달리, 같은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하는 금제세환이식은 1957년 미국 순회전에 소개된 이후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금제태환이식과 금제세환이식은 둘 다 금낭화형 수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섬세한 금선과 금알갱이로 장식한 누금세공 기법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밀한 양식적 공통성을 보여준다.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은 1970년대부터 내내 보물 제455호로 잘못 알려져 왔으나, 2001년부터 출토지가 확실하게 밝혀졌다. 이후 2009년에는 보물 제455호의 명칭이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2018년 노서동 금귀걸이의 근대 문화사적 위상을 고려하여 다시 보물 제455호의 명칭이 노서동 금귀걸이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황오동 52호분 출토 금제태환이식은 그동안 뛰어난 제작기법과 양식적 우수성을 다시 인정받아 보물 제2001호로 새로 지정되었다.

1949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된 경주 황오동 52호분은 발굴 이듬해인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러워지고 출토 유물은 그대로 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거의 잊혀졌다. 같은 고분에서 발견된 금제태환이식과 세환이식의 발굴 상황은 명확하지 않으나, 당시 촬영된 유리건판에 의하면 피장자가 착용하고 있던 것은 태환이식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이 두 귀걸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발굴보고서의 간행과 함께 좀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간행되지 못한 이 고분의 발굴 과정에 대한 새로운 자료가 좀 더 공개된다면, 이 고분에서 출토된 두 쌍의 금귀걸이가 가진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삼국시대, 특히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제 귀걸이의 발굴 및 연구사에 대해서 간단히 고찰한 후, 2018년 새로 보물로 지정된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를 중심으로, 두 귀걸이의 현황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황오동 금귀걸이의 수하식 형태가 지금까지 “입체 펜촉형”으로 불려왔지만, 이 형태가 한국의 자생 식물이자 약용 식물인 “금낭화”의 형태와 조형적으로 상당히 유사함을 지적하고 그 명칭을 “금낭화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국보, 혹은 보물로 지정된 삼국시대의 금귀걸이는 모두 일곱 건이다. 국보는 제90호로 지정된 경주 보문동 부부총 금귀걸이 1쌍, 제156호로 지정된 무령왕 금귀걸이 1쌍, 제157호로 지정된 무령왕비 금귀걸이 1쌍 등 모두 3건이며, 보물은 제455호로 지정된 경주 노서동 금귀걸이 1쌍, 제557호로 지정된 삼성미술관 소장 금귀걸이 1쌍, 제1921호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로 지정된 금조총 출토 금귀걸이 1쌍, 그리고 최근 제2001호로 지정된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 1쌍 등 4건이다. 이들은 모두 금으로 제작하고 가는 금선과 작은 금알갱이들을 이용하여 표면을 장식한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하여 매우 화려하고 정교한 양식을 보여준다. 또한 보물 지정 귀걸이 중 노서동 금귀걸이를 제외한 3건은 모두 금낭화형 수하식을 가지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보물 제2001호 경주 황오동 금귀걸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출토 고분의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연구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국보 제90호 경주 보문동 부부총 금귀걸이와 함께 신라시대 금속공예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최근 보물로 지정된 노서동 금귀걸이와 황오동 금귀걸이는 모두 제작 기법 및 양식적 특징으로 볼 때, 6세기 중후반경 신라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상당히 뛰어난 세공기법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금속공예품들이다. 향후 이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과학적인 분석과 조사가 진행되고, 공반 출토유물들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된다면, 6세기 중후반경 신라 문화와 독특한 금속공예 양식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경주박물관, 2001, 『新羅黃金』, 국립경주박물관.
- _____, 2015a, 『경주의 황금문화재』, 국립경주박물관.
- _____, 2015b,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국립경주박물관.
- _____, 2016, 『慶州 金冠塚(遺物篇)』, 국립경주박물관.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11, 『日帝強占期 新羅古墳 發掘調査 關係資料集』,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 國立中央博物館, 1972, 『國立中央博物館名品圖鑑』,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1976, 『韓國美術五千年』, 光明出版社.
- _____, 1986, 『名品圖鑑』, 國立中央博物館.
- _____, 2014, 『金冠塚과 兪斯智王』,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6, 『慶州 金冠塚(遺構篇)』, 국립중앙박물관.
- 권향아, 2002a, 「三國時代 新羅 耳飾의 製作技法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b, 「삼국시대 이식(耳飾)의 누금기법(鑲金技法)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5-1, 한국공예학회.
- 金基雄, 1988, 「新羅와 伽倻의 文化交流 - 古墳出土 裝身具類를 中心으로」,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9, pp.71-79.
- 김대환, 2014, 「일제강점기 금관총의 조사와 의의」, 『고고학지』 20, 국립중앙박물관.
- 김문심, 2000, 「고대 동서미술교류사에 보이는 누금세공기술에 대한 연구 - 명칭 고증을 중심으로」, 『실학사상연구』 14, 역사실학회.
- 김문자, 1999, 「삼국시대 심엽형 귀걸이 양식에 대한 연구」, 『복식』 45, 한국복식학회.
- 김용성, 2010, 「일본인의 신라 고분 조사」, 『先史와 古代』 33, 한국고대학회.
- 金元龍 · 安輝濬, 1993, 『新版 韓國美術史』,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載元, 1973, 『韓國美術』, 探求堂.
- 김정학, 1965, 「돌아와야 할 문화재」, 『경향신문』 1965.8.2. 5면.
- 文化財管理局, 1971, 『文化財大觀 寶物篇慶(下)』,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 _____, 1974, 『韓國古美術』, 光明出版社.
- 문화재청, 2009, 『문화재대관 국보 금속공예』, 문화재청.
- 복천박물관, 2018, 『고대인의 멋, 귀걸이』, 복천박물관.

- 尹相惠, 2016, 「金冠塚 被葬者の 性格 再考」, 『고고학지』 22, 국립중앙박물관.
- 尹世英, 1984, 「新羅耳飾의 型式學의 一考察」, 『고대문리대논집』 2, 고려대학교.
- 이기환, 2017,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 뒤바뀐 보물, 소박당한 황금 귀고리」, 『경향신문』 2017.4. 12.
- 이난영, 1976, 「한국 문화의 재음미」, 『경향신문』 1976.8.4.
- _____, 2012, 『한국 고대의 금속공예』, 서울대학교 출판부. 개정판.
- 이석우 · 노재현 · 오현경, 2011, 「전북 완주군 대아리 금낭화 군락지의 천연보호구역적 가치와 생육특성」, 『문화재』 44-1,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영희, 1997, 「고신라 금속공예의 누금세공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李仁淑, 1974, 「古新羅期 裝身具에 대한 一考察」, 『歷史學報』 62, 역사학회.
- _____, 1992, 「신라와 가야의 裝身具」, 『韓國古代史論叢』 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 이청규·김대환, 2000, 「경주지역 분묘조사와 연구 -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인류학연구』 10,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 李漢祥, 1994,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 裝身具 分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_____, 1995, 「5~6세기 신라의 변경지배방식: 장신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33, 서울대학교.
- _____, 1998, 「5~6세기 신라 태환이식의 분류와 편년」, 『고대연구』 6, 고대연구회.
- _____, 1999, 「삼국시대 이식과 대금구의 분류와 편년」, 『삼국시대 장신구와 사회상』,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 _____, 2002, 「6세기대 신라 태환이식의 제작기법과 편년」, 『慶州文化研究』 3,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 _____, 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 _____, 2007, 「5~6세기 금속장신구의 연대론」, 『고고학탐구』 창간호, 고고학탐구회.
- _____, 2009a, 「耳飾으로 본 古代 東北아시아 各國 사이의 交流」, 『백제문화』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_____, 2009b, 『장신구 사여체제로 본 백제의 지방지배』, 서경문화사.
- _____, 2011, 『동아시아 고대 금속제장신구문화』, 고고.
- _____, 2013, 「김포 운양동 유적 출토 금제이식에 대한 검토」, 『김포 운양동유적 II-2권』.
- 李熙濬, 2002, 「4~5世紀 新羅 古墳 被葬者の 服飾品 着裝 定型」, 『韓國考古學報』 47, 한국고고학회.
- 정연권, 1993, 「고운 한복에 어우러진 복주머니 - 금낭화」, 『생활과 농약』 14-3, 한국작물보호협회.
- 정인성, 2009, 「일제강점기 경주고족보존회와 모로가 히데오」, 『대구사학』 95, 대구사학회.

- 周旻美, 1995,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 慶州地域出土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96, 「三國時代 耳飾의 研究 - 慶州地域出土 垂下付耳飾을 중심으로」, 『美術史學 研究』 211,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1997, 「三國時代 耳飾의 製作技法」, 『古代研究』 5, 1997. pp. 105-140.
- _____, 2003, 「韓國 古代 耳飾의 着裝方式 研究」, 『역사민속학』 17, 한국역사민속학회.
- _____, 2012, 「고대 동남아시아의 귀걸이 전통과 그 영향」, 『미술사논단』 34, 한국미술연구소.
- 차순철, 2006, 「일제강점기의 신라고분조사연구에 대한 검토」, 『문화재』 39, 국립문화재연구소.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崔淳雨, 1978, 『圖說 韓國美術五千年』, 玄岩社.
- 편집부, 1949, 「慶州에서 또 遺物出土 - 新羅朝의 黃金製品이 수두룩」, 『京鄉新聞』 1949.7.2.
-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91, 『문화재대관 ⑦ - 보물 5 고분유물·선열유물·자기·공예』, 大學堂.
- 한병삼 편, 1975, 『韓國美術全集 - 古墳美術』, 동화출판공사.
- 韓炳三 責任監修, 1980, 『古墳美術』, 韓國의 美 22, 中央日報社.
- 한병삼 編, 1985, 『古墳金屬』, 國寶, 藝耕産業社.
- 함순섭, 2011, 「한일강제합병 전후 일제관학자의 경주지역 조사」, 『신라문화연구』 5, 국립 경주박물관.
- 허권 외, 2000, 「금강화의 생육특성 및 자생지 식생 조사」, 『한국자원식물학회지』 13-3, 한국자원식물학회.
- 黃沔根, 1972, 『韓國裝身具史』, 瑞文堂.
- _____, 1974, 『韓國裝身具美術史研究』, 一志社.
- 谷畑美帆, 1992, 「日本及び朝鮮半島出土の垂飾付耳飾について」, 『考古學研究』 40, 考古學研究會.
- 東京國立博物館 編, 1982, 『寄贈 小倉コレクション目録』, 東京國立博物館.
- 藤田亮策, 1948, 「朝鮮及び日本發見の耳飾について」, 『朝鮮考古學研究』.
- 濱田耕作, 1926, 「細金細工に就いて」, 『史林』 7-4, 京都大學文化部.
- 小林行雄, 1962, 『古代の技術』, 塙書房.
- 有光教一・藤井和夫, 2000, 『朝鮮古蹟研究會遺稿 I - 慶州皇吾里第16號墳・慶州路西里215番地古墳發掘調査報告書 1932-1933』, 유네스코 東아시아문화 연구센터 재단법인 東洋文庫
- 有光教一, 1978, 「新羅の太環式金製垂飾について」, 『朝鮮學報』 88.
- 伊藤秋男, 1972, 「耳飾の型式學的研究に基づく韓國古新羅時代古墳の編年に關する一時論」, 『朝鮮學報』 64.

朝鮮總督府, 1916, 『朝鮮古蹟圖譜』 3,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 1924,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古蹟調査特別報告 第三冊, 朝鮮總督府.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57, *Masterpieces of Korean Art*.
Washington: National Gallery of Art.

【Abstract】

Study of the earrings from Nohseo-dong and Hwangoh-dong,
respectively designated 'Treasures'

Kyeongmi Joo*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production technology, and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pair of earrings from Noseo-dong, Gyeongju (designated Treasure No. 455 in 2018) and the pair of earrings from Hwangoh-dong, Gyeongju (designated Treasure No. 2001 in 2018). Amongst the numerous gold earrings recovered from Silla tombs, these two pairs are important masterpieces that demonstrate excellent formative properties and the superior use of the filigree technique. However, from the 1950s, the names and contexts of discovery for these two pairs of earrings had been wrongly perceived, and this mistake was only identified after 2000. In the case of the earrings from Noseo-dong, this was because the excavation report of the Noseo-dong 215 Beonji Tomb, which had been excavated in 1933 by Japanese archaeologist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as finally published in 2000. The other pair of earrings had been discovered in 1949 at the Hwangoh-dong Tomb No. 52; however, due to the confusion of the Korean War that had begun soon afterwards, the excavation report had yet to be published and the details of the excavation left unknown.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s of the discoveries of the two pairs of earrings; its also reviews the research that has been carried out on these earrings, in addition to presenting a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Silla earring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he unique, three-dimensional shape of the hanging ornaments of the Hwangoh-dong earrings, designated Treasure No. 2001, is of great importance. Until now, hanging ornaments of this shape were referred to as 'three-dimensional pen nib' type hanging ornaments from a modern perspective. In this paper, it is pointed out that such hanging ornaments are similar in shape to the blossoms of the *Dicentra spectabilis*. Known as 'Geumnanghwa' in Korean, this flower is native to Korea and used as a herb. As such, it is suggested that hanging ornaments of this shape should hereafter be referred to as 'Geumnanghwa' type hanging ornaments. In addition, it is proposed that,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on Silla gold earrings which have mainly centered upon type and production technique,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cultural-historical meanings embedded in these earrings.

Key words : Silla, gold earrings,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fine metalworking,
Dicentra spectabilis, Geumnanghwa

* Lecturer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